

경전철 면목선(D-2노선)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접수번호	28
------	----

2007. 9. 5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청 원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 7동 두산아파트 202동 1204호 강경노·김시현·이병호·김주용외 5,397인
- 소개의원 : 윤기성(한나라당, 중랑 제1선거구, 교통위원회)
- 접수일자 : 2007. 6. 25
- 회부일자 : 2007. 7. 2

2. 청원요지 (소개의원 : 교통위원회 윤기성 위원)

- 본 청원은 강경노 외 5,400명의 주민들이 당초 계획구간인 “청량리~사가정” 구간에서 사가정역을 배제하고 면목역만을 경유토록 한 현재의 노선변경에 반대하고, 당초 노선의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목선 관련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임.

3. 주요내용

-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주변에는 서일대를 포함한 10개의 교육시설과 집단거주시설인 아파트, 용마랜드, 중랑문화체육관, 중랑구민회관, 용마폭포공원, 용마산, 용마산성 등 주요 교통시설물이 산재해 있음.
- 또한 현재 공사중인 용마터널과 암사대교가 준공되면 사가정역 주변은 강동구 암사동과 천호동을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강변대로, 88올림픽대로와 연결되어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임.
- 서울시에서도 사가정역 주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중 면목선의 경우 대안노선을 검토하면서 D-1 노선부터 D-5노선까지 5개 노선중 4개 노선은 모두 사가정역을 경유하도록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노선으로 유독 면목역만을 경유하는 D-2 노선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며, 특히 지난 5월 시민공청회시 배부한 자료를 보면 후보노선 결정에 변수가 되는 환승객 수가 D-4 노선의 경우 20,897명이나 적게 조사된 것으로 되어 있어 주민의 많은 의혹을 사고 있음.
- 따라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가정역을 배제한 경위, 환승객수가 적게 조사된 경위, D-2노선을 결정한 사유 등 면목선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혹을 해소하여 주기를 바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식)

- 동 청원안은 2007.6.25 서울시 중랑구 면목7동 두산아파트 202동 1204호 강경노 외 5,400인이 윤기성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동 청원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의 계획구간중 하나인 “청량리~사가정” 구간에서 사가정역을 배제하고 면목역만을 경유토록 한 현재의 노선변경에 반대하고, 노선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목선 관련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임.

□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 동 청원은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면목역 경유노선(D-2노선)과 사가정역 경유노선(D-4)의 환승객수가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된 후, 금번 노선결정에서 제외된 사가정역 인근주민들이 '07.6.1 서울시에 노선결정

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금번 청원을 통해 시가 면목선 만의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임.

- 당초 공청회에서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노선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가정 경유(D-4)노선의 환승객수는 27,513명으로 발표되었고, 사가정역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서울시는 단순 표기오류를 들어 이를 48,410명으로 정정한 바 있음.
- 즉, 서울시는 동북 D-4 환승객수가 동북 D-3, 동북 D-4, 동북 D-5 대안에 비해 현저히 적게 나타난 사유로 당초 준비된 자료를 공청회 자료로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로 사가정역의 환승객수인 20,897명의 값이 누락되었음을 인정한 바 있으나, 실제 분석 과정에는 그 값이 누락되지 않고 반영되어 분석당시 검토된 대안노선간 우선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음(별첨 참조).
- 다만 행정관리측면에서 공공관계(P·R)의 일종인 공청회는 행정의 적극적 정보제공과 의견청취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내실있는 정책수립 및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사안의 경우 이해관계자에 대한 시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집행부의 “단순오기”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오해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고, 사가정역 주민과 면목역 주민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우위에 있는 서울시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민실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동 사안의 경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시의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시민의 의혹이 증폭되었고, 이후 충분한 설득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의회 청원을 통한 공청회 개최 요구로까지 진행되었는바, 동 지역주민의 노선선정과 관련한 의혹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행정과 국민간의 불신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동 노선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집행부가 상기한 숫자 조정이 종합평가순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면목역 주민들의 반대가 발생할 가능성과, 여타 탈락노선 주민의 공청회 요구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청회 추진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면목선 추진현황 및 노선대안 검토결과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3. ~ 2008년 상반기(기본계획 승인시 까지)
- 소요예산 : 323.5백만원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작성
 - 시민공청회 개최 및 주민공람 공고 시행
 -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심의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건설교통부 심의·확정

○ 추진경위

- '06. 5.16 :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90호)
- '06. 6.30 : 용역시행 계약
 - 용역기간 : '06.6.30~'07.8.29(14개월간)
 - 용역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06.11.~'07.3. : 중간보고회(3회) 및 환경성검토협의회 개최
- '07. 4. 6~20 : 제1,2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07. 4.18~5.1 : 주민공람공고 시행(14일간)
 - 공람방법 :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시본청 및 자치구) 게재
 - 의견제출방법 : 자치구 공문, Fax, 우편 또는 전자메일
 - 의견제출건수 : 총 4,476건
- '07. 5. 2 : 시민공청회 개최
 - 참석자 : 약 380명(국회의원 1, 시의원 10, 구의원 68 등)
- '07. 6.26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발표

□ 면목선 노선대안 검토결과

○ 대안노선

구분	동북D-1 (청량리~사가정)	동북D-2 (청량리~면목신내)	동북D-3 (청량리~답십리~신내)	동북D-4 (청량리~사가정~신내)	동북D-5 (고려대~사가정~신내)
노선 연장(km)	5.20	9.05	10.41	9.25	10.73
정거장수	6	12	14	12	14
사업비(억원)	4,687	8,349	9,522	8,464	9,770
B/C	1.09	1.05	1.03	1.03	0.89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대안노선도



○ 검토결과

구분	동북D-1	동북D-2	동북D-3	동북D-4	동북D-5
수단전환 수요(인/일)	4,523(1.62)	8,602(6.82)	9,499(7.87)	8,036(6.07)	8,451(6.63)
km당 수송 수요(인/일)	9,504(5.94)	11,104(7.87)	10,860(7.62)	11,002(7.77)	10,456(7.16)
B/C	1.09(8.29)	1.05(7.63)	1.03(7.26)	1.03(7.26)	0.89(4.12)
NPV	311(7.47)	315(7.48)	206(7.16)	195(7.12)	-789(3.72)
km당 공사비(억원)	901(2.56)	923(1.38)	915(1.77)	915(1.75)	911(2.00)
환승노선수	2(1.75)	3(3.37)	3(3.37)	3(3.37)	4(5.37)
환승객수	22,885(1.98)	49,412(6.35)	58,120(7.70)	48,410(6.18)	54,391(7.16)
km당 영향권 인구수	49,141(9.54)	43,764(8.18)	40,290(6.58)	42,085(7.47)	40,182(6.52)
km당 영향권 종사자수	14,569(6.18)	12,265(4.60)	11,884(4.34)	11,609(4.16)	11,627(4.17)
골목도	1.254(8.87)	1.527(3.98)	1.756(0.68)	1.561(3.29)	1.765(0.61)
도시철도 취약정도	0.536(3.85)	0.581(2.19)	0.584(2.07)	0.587(1.98)	0.574(2.40)
도시계획 발전축 부합도	5.00(8.48)	5.00(8.48)	5.00(8.48)	5.00(8.48)	5.00(8.48)
종합 가중평점	5.43	5.91	5.78	5.60	5.34

주) ()는 각 평가지표별 평가수치를 정규화하여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이며, 종합 가중 평점은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최종 평가결과임

○ 선정대안 : 동북 D-2 노선

- 5가지 비교대안 노선중 면목동을 경유하는 D-2노선의 종합평점이 5.9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D-3 노선(5.78), D-4 노선(5.60) 순으로 나타남
- D-2노선이 D-4노선에 비하여 경제성, 수송수요 등 9개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공사비 측면에서만 낮게 평가되었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의 건 서

□ 청 원 명 : 경전철 면목선(D-2노선)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

□ 채택의견

- 동 청원은 당초 공청회 당시 제안되었던 “청량리~사가정” 구간중 사가정역을 배제하고 면목역만을 경유토록 한 현재의 노선 변경을 반대하며 대해 당초 노선의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목선 관련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으로,
- 민감한 사안에 대한 서울시의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노선결정에 대한 시민의 의혹이 증폭되었고, 이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청원을 통한 공청회 개최 요구가 나타나게 되었는바, 교통위원회는 동 지역주민의 노선선정과 관련한 의혹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행정과 시민간의 불신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동 노선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원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동 청원을 채택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